

국가의 자살

대평로

이 하 원

외교안보 에디터



해의 출장 가거나 서울에서 영국인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다. “당신은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찬성했느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국인 대부분은 이에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이도 있었다. 한 고위 관리 반응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노 코멘트.” 하지만 심각해지는 그의 얼굴에서 브렉시트에 불만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다. 51.9%가 찬성표를 던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경제 침체, 무역 위축, 금융 중심지 지위 약화… 온갖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브레그레트(Bregret)’ 현상이 퍼졌다. 올 초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인 55%가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올바른 선택’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며 ‘2류 국가로 가는 길’ ‘국가적 자살’에 비유되기도 한다.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26]

천주교 첫 순교지에 세운 전동성당

전주 한옥마을에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다.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방문객과 신자들로 늘 붐빈다. 사적으로 지정된 전동성당이다.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자 전동성당 입구에는 “주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란 기도문이 걸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때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아교보)을 비롯한 순교자 124위를 복자(福者)로 높이는 시복식을 직접 거행했다. 복자 윤지충은 정약용 형제와 고종사촌으로 서적을 통해 처음 천주교를 접하고 영향을 받았다. 모친상을 치르며 유교식 제사를 거부하고 천주교식 예법을 따랐다. 그 일로 1791년 윤지충은 동조하는 외종사촌 권상연과 함께 풍남문 밖에 서 참수당한다. 신해박해로 기록된 한

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였다. 관에서는 처형 현장을 그대로 뒤 경고하고는 나중에 시신을 거두게 했다. 그로부터 100년 뒤 1891년 프랑스인 보두네 신부가 처형터 일대를 사들인 곳이 지금의 전동성당 자리다. 1908년 명동성당을 지은 경험이 있는 푸와넬 신부의 설계로 성당 건축을 시작해 6년 만인 1914년 외부 공사를 마쳤다. 성당의 주춧돌은 신작로를 낸다는 구실로 훼손된 전주부성의 성벽돌을 허락받아 사용했다. 참수된 순교자들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스며든 돌일 것이라 전해진다. 흙으로 구운 벽돌과 다양한 자재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조화롭게 건축됐다. 성당 건물 전체가 성모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평면도를 살펴보면 신비롭고 함께 기쁜 인연



이 더욱 숭고하다. 안장되었다는 기록만 있고 행방을 알 수 없던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가, 230년 만인 2021년 완주 조남이성지 인근 바우배기에 서 발견돼 교리당에 임시로 모셔졌다. 임실 치즈로 알려진 벨기에 출신 디디에 신부도 전동성당에서 한국 이름 지정환을 얻고 지역에 선한 영향을 남기고 88세에 선종했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 한 줄 이름만 남긴 교황의 묘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초여름 전동성당을 비추는 햇살이 더없이 아름답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자연유산위원회



*영상 QR코드

社 説

보석 목걸이와 ‘관봉권’ 돈다발, 이게 뭐냐

서울남부지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김 여사와 ‘건진 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간의 각종 이권·인사 청탁 관련 수사라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에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전씨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통일교 전 간부와 대통령 부부 만남을 주선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면 중범죄다. 전성배씨 집 압수 수색에선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된 5000만원 돈다발도 나왔다. 한은이 금융기관으로 신권을 보낼 때 포장하는 방식으로 ‘관봉권’이라고 불린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전씨는 ‘기도비로 받았는데 준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중에선 구경하기 힘든 ‘관봉권’을 일반인이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관봉권’ 비닐에는 기기 번호·담당자·일련 번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다고 한다.

“이겨 놓고 선거한다”니 선거가 요식행위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의원이 “선거는 이겨 놓고 하는 것이요 선거운동 기간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을 쳐다봤더니 박근혜(전 대통령 득표율)보다 큰 숫자가 내려오는 걸 보기도 했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 있다. 이대로 가면 대선 승리는 뻔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와 정당은 겸허하게 유권자 앞에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선거는 누구를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와 법원·검찰·감사원을 수시로 압박하며 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대법원을 공개 비난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선 “징계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등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에 대해선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중국 군함 우리 해역 진입, 우리도 비례 대응 유지해야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 해역에 지난해 330여 회, 올해 4월 중순까지 100여 회 진입했다고 한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중국 군함이 한국이 관할하는 바다에 들어온 것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국 측이 주장하는 EEZ가 일부 겹치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양국 해안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이지만 중국은 자국 땅이 더 넓고 인구가 더 많으니 해역도 그만큼 더 차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중국 군함이 우리 EEZ 안은 물론 영해와 근접한 곳까지 들어온 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억지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시도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서남 해역을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처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서해보다 9배 이상 넓고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남중국해에도 막무가내로 구단선(九段線)이란 것을 그어놓고 90%가 자기 영해라고 우기는 나라가 중국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그런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전씨 딸도 2022년 전씨에게 “아빠, 대통령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란 소문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찰리는 전씨 처남의 별칭이라고 한다. 무속인 가족까지 대통령실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있었다. 전씨 딸도 이곳 일을 했다고 한다. 이력과 정체가 불분명한데도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 고리가 김 여사였을 것이다.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윤 후보를 안내하며 등과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이 끝난 후 전씨와 교류를 부인했지만 윤 정권 초부터 용산 주변에선 ‘천공보다 건진이 더 문제’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건진 법사가 (총선) 공천 줬다더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주변에는 역술인·무속인·법사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을 둘러싼 소문들은 하나둘 사실로 드러났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관봉권’ 돈다발까지로 이어지고 있다.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6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국 전 의원에 대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했다.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임기 개시 후 60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과 지역 화폐 증액 안도 냈다. 반면 정치권 원로·단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선 전개론 논의는 사실상 반대했다. 당내 후보 경선 토론회도 두 차례에 그쳤다. 대선에 변수가 될 만한 일은 모두 피하면서 승리를 굳히려는 생각뿐인 듯하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한 달 이상 남았다. 앞으로 공약 발표와 후보 토론회도 이어질 것이다. 국민은 이를 모두 본 뒤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엔 이 모든 과정이 귀찮은 통과의례인가. 정당과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중국은 오히려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 군함이 중간선을 넘어와서 우리 관할 해역에 진입하면, 우리 군함도 즉각 중간선을 넘어가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실효 지배권을 강화하지 못한다.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 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우리 해군은 이런 방식의 비례 대응을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비례 대응을 더욱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기네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도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우리도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흐르든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이렇게 상대해야 하는 나라다.

이재명의 위장 우경화 Show

본색은 아르헨·그리스·베네수엘라 포퓰리즘 ... 속지 말자, 변신·변장·위장술!

이승만·박정희·박태준 참배, SK하이닉스 방문 등 | 운동 표 얻기 위한 쇼. 쇼. 쇼! | 걸만 우파, 속은 포퓰리즘

▣ 저질 중우(衆愚) 정치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한동훈이 결승전에 올랐다. 5월 1일엔 대법원이 **〈이재명 유죄나 무죄〉**를 때린다. 숨 막힌다.

이럼에도 **이재명**은 서커스 같은 **〈재주넘기〉**에만 전념한다. 여유만만해서인가. 초조해서인가? 현란한 **〈변신술〉**을 구사한다. **〈중도우파 사냥〉**이 거거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재명 변장술〉**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런 **〈죄로 갔다, 우로 갔다〉**를 “와~”하고 반기는 **〈군중(crowd)〉**이 있다.

▣ 국힘, 뭐하고 자빠졌나?

“이재명 후보가 최근 내놓은 정책은 철저하게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것이다. 개미 투자자를 노린 상법 개정, 한강벨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 월급쟁이를 의식한 소득세 완화였다”
- 조선일보 2025/04/22

이걸 보며 대뜸 튀어나오는 소리, 국민의힘 친구들은 대체 **“뺏히고 자빠졌느냐?”**는 분통이다.

이재명은 저만큼 앞서 달린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수들은 한가로운 입질만 해낸다. **“탄핵 반대를 사과하느냐 마느냐”** 어찌고저찌고.

▣ 베네수엘라·아르헨·그리스 따라 하기

한국인들의 삶에 치명적으로 직결된 오늘의 논제는 뉘가? **문재인-이재명 식 〈퍼주기 복지〉** 이대로 좋은가? 청년의 미래를 희생한 **〈갓간 털어 나눠 먹기/기업 죽이기/과격 노조 패악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 말이다.

〈문재인-이재명 포퓰리즘〉은 1920년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 1980년대 그리스의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사회당(PASOK) 정권이 했던 것과 흡사하다.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은 전신-전화-철도를 **〈국유화〉**했다. **〈무상 교육/공공 의료·보육〉**을 왕창 실시했다. 모두가 국가 부채였다. 중우(衆愚)는 공짜에 환장했다.

파판드레우 좌의 정권도 그랬다. 교육·의료·공무원 출근 교통비가 무료였다. 월세(月賃)까지 지원했다. 경제성장률이 5.2%에서 1.5%로 추락했다.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



▲ 에바 페론과 후안 페론. 퍼주기 정책으로 노조의 지원을 받아 집권했다. 집권 후 서민층을 위하여 마구잡이 선심정책을 폈다. 나랏돈을 마구 찍어 무차별 복지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세계 4위 경제대국의 몰락. 국가부도와 IMF 구제금융을 단골로 들락거렸다. 에바 페론의 생애를 미화한 뮤지컬과 영화가 〈에비타〉. 흥행은 대성공을 거둬, 제작자들은 돈방석에 올랐다. 모두 미국과 영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Don't cry for me Argentina〉란 노래로 아르헨티나와 에바 페론은 유명해졌지만, 수익은 1도 얻지 못했다. © 나무위키

차베스·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에는 아예 **〈쓰레기통 뒤지는 처지〉**가 됐다. 세 나라 모두 **〈외환위기·국가부도·IMF 구제금융〉** 신세다.

▣ “우경한다니까 정말 우경하는 줄 알았나?” 할 것

이래서 나온 게 아르헨티나의 우파정권 지도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파격적 역주행이다. **“빌어먹을 자유를 위하여!” 〈퍼주기 복지〉**를 〈전기톱〉으로 끊었다고 했다.

한데 한국에선 그 **〈우경화 쇼〉**를 국민의힘에 앞서 **이재명**이 하겠다는! 코미디다. 하지만 썰 잡는 게 매다. 나중에 **“우경한다니까 정말 우경하는 줄 알았나?”** 하면 그만이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 코미디를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 의힘 혼자서 감당하기엔 아무래도 벅찬 6.3 대선일 듯 싶다.

1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4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

